

“코카콜라 갑질 멈춰라”

업계 최악 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 운송사, 21명 배차 중지 '사실상 해고' 화물연대 분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글로벌 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운송사를 내세워 화물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2지회 코카콜라분회 조합원들은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는 일방적인 배차정지를 철회하고 운송료를 현실화하라”며 “코카콜라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GU상사)도 갑질행포 등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코카콜라분회 조합원과 사측에서 고용한 안전요원간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한때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 있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사태수습보다는 화물노동자들과 기자회견 성격 및 공장 내 진입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에 나선 코카콜라 분회는 “코카콜라 화물 운송자인 우리는 개인별로 한달에 300여만원의 할부금을 내고 차량을 구입한 뒤 개인사업자등록에 이어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구조로 일하고 있다”며 “현재 코카콜라와 운송사(GU)가 운임비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한 탓에 하루 600km를 운행할 경우 운임비는 34만 원으로,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인 31만원을 제외하면 겨우 3만원정도가 남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코카콜라 광주공장) 건너편에 있는 롯데

데일성음료 광주공장도 동일 근무조건에서 운임비를 비교해봐도 하루 평균 12만원, 한달이면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특히 코카콜라의 경우 운임비에 공병회수 운임마저 포함시켜 공병을 회수하는 일마저 사실상 공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잡다 못한 코카콜라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11~15t급 원카(운송차량)에 ‘코카콜라 운송료 현실화 하라!’, ‘코카콜라 공짜 공병회수 노맹류!’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항의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코카콜라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사(GU상사)는 지난 12일 밤 조합원 26명 중 운송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한 2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배차중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 코카콜라는 서울에 본사를 둔 GU상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인 화물노동자는 차량 구매 후 GU상사와 계약을 맺고 음료를 이송하고 있다.

고미경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코카콜라 화물노동자들은 업계 최악의 운송료와 운송사의 갑질행포에 맞서고 있다”면서 “추석이 코 앞이지만, 이번 배차중지 조치로 명절은커녕 매달 300만원에 이르는 등 차량 할부금조차 연체할 처지로 내몰리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광주공장의 배차를 담당하는 장성연 GU상사 팀장은 “코카콜라 분회는 지난 3월 운송료 3%를 인상한 이후 6개월이 채 안돼 2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배차중지 조치도 해고통지가 아니다. 코카콜라 이미지 등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현수막을 제거하면 다시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코카콜라 광주공장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번 일은 물류에서 발생한 일로 답을 하지 않겠다”며 “본사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질의 공문을 보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조합원들이 17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송료 현실화와 일방적 배차정지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라돈 침대’·BMW 차량 화재사고...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

박상기 법무 “증권 외 분야 조속 확대”

‘라돈 침대’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 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증권 외 분야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들은 17

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소비자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제도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도 오히려 소비자에게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한국소비자위원회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의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

검사 내부고발 늘어날까...외부발표 ‘승인’서 ‘신고’로

앞으로 검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되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가 외부 기고·발표를 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된 강령은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를 보장하는 대신,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해 피의자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이나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론기고나 방송출연,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지역 택배 피해 절반은 농수산물 등 식품 훼손·부패

호남지역 택배 이용객은 농·수산물 포장에 훼손돼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광주와 전남·북 지역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165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56건(34%), 전남 55건(33.3%), 광주 54건(32.7%)으

로 비슷하다. 피해 물품은 종류가 확인된 154건을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등 식품이 절반에 가까운 63건(40.9%)을 차지했다. 이어 의류 17건(11%), 가전제품 14건(9.1%), 정보통신기기 13건(8.4%), 레저용품 7건(4.6%)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운송물 파손 또는 훼손이 57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농민후계자가 직접재배한 월빙자미잡곡

농민후계자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국내산 100% 자미잡곡세트로 건강을 선물해보세요!!

자미잡곡

고급잡곡5중세트

고급잡곡4중세트

자미농민후계자영농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56-3번지

Tel. (062)514-2902 H.010-8600-4525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7	해질녘	14:26	
		해진	18:36	달진	---:--	
두둥실 물개구름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18/28	보성	구름 많음	15/27	
목포	구름 많음	19/26	순천	구름 많음	19/28	
여수	구름 많음	21/26	영광	구름 많음	16/27	
나주	구름 많음	16/28	진도	구름 많음	18/26	
완도	구름 많음	19/28	전주	구름 많음	17/27	
구례	구름 많음	16/28	군산	구름 많음	15/26	
강진	구름 많음	16/28	남원	구름 많음	16/27	
해남	구름 많음	16/28	흑산도	구름 많음	21/25	
장성	구름 많음	15/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먼바다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38		07:54		
		13:29		21:04		
여수		08:43		02:27		
		23:34		17:02		
◇ 주간 날씨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	☁	☁	☀	☀	☁	☀
18/26	19/25	21/26	16/26	15/26	15/25	14/25